

Natural photoshop

글. Geral Pryor (Associate professor, Artist-in-residence photo head,

Department of art and art professions, New York University)

디지털 시대를 맞아 사진가들은 실제 자연의 이미지 위에 포토샵을 사용하여 다른 소스에서 가지고 온 다양하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을 추가하여 왔다. 여러 레이어(layer)로 이루어진 콜라주 (collage)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사진 속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탁인아는 그녀의 작품 세계를 통해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합친 레이어로 구성된, 콜라주 기법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의 서로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서로간에 겹맞지 않는 요소의 조합이 현실세계와 실제 자연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탁인아의 예리한 시각은 '자연의 포토샵'을 포착해낸 것이다. 그녀가 이러한 사물들을 조작이 없는, 현실 그대로의 이미지로서 받아들였다면, 이 비현실적인 이미지들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현상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탁인아의 작품세계에서는 비현실이 승리한다. 그녀의 작품 속 시선 (vision)은 항상 초현실적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사물은 서로 불일치하며, 그 이미지는 아이러니컬하다.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그 낯선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탁인아는 우리의 일상에 이미 아무렇지도 않게 녹아 들어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발견해 낸 것이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우리가 광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물들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주변의 풍경, 그리고 지평선에 걸친 도시의 마천루, 산등성이와 같은 피사체에 비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크게 표현되었다. 게 요리 레스토랑 건물 밖에 걸쳐 있는 게의 이미지는 너무나 거대하여, 건물을 금방이라도 부수어 버릴 듯 한 기세이다. 또한 해변의 공원과 공릉 역시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들이다. 그렇지만 보란 듯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구석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착각을 일으킨다. 탁인아의 사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연계에 대한 이러한 거대한 왜곡을 일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사진은 프레임, 색상,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표현 (rendering)되는 디지털 기법과 사진 인쇄 기법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사진을 감상하는 우리가 사진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 만큼 놀라운 이미지와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사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탁인아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그제서야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사진을 감상하는 우리들에게는 극도의 혼란감 (disturbance)이 남겨진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러한 비 정상적 이미지들이 바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된다. Robert Venturi는 라스베이거스의 건축물을 다룬 그의 저서에서, 건물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들어서 그 본래의 목적을 압도해버리는, 하나의 상징물 (signage)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여준 바가 있다. Andy Warhol의 회화에 등장하는 반복적인 패턴의 이미지들은, 소비자인 우리가 매일 맞닥뜨려야만 하는 그 방대한 숫자의 광고판들을 상징하고 있다. Richard Prince는 작품을 통해 광고에 등장하는 말보로맨의 미덕을 격찬한 바 있다. 이 모든 예술가들과 그 작품활동 (event)은 Jean Baudrillard 가 자신의 저서 "시뮬레이션 (Simulations)"에서 극 초현실 (hyperreal)이라 부른 일련의 초 현실적 세계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명은 우리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복제된 존재, 그러나 그 존재사실조차 그 존재 자체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존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표식이다.

탁인아의 작품은 이러한 초현실적 세계를 예견했던 시선들의 연장선상이라 보여진다. 그래서 순수한 자연과 오만한 광고판이 함께 존재하는 이 곳, 대한민국의 풍경을 보았을 것이다. 그녀의 사진은 포토샵의 레이어 기법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일 거라는 일반적 기대 자체에 반기를 든다. 그녀의 사진들을 우리의 상상과 편견 없이 들여다보면, 현실을 가공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는 우리가 극초현실적인 상황을 너무도 당연하게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자연의 포토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